"생명 앗아가는 안전사고 막겠다"

김승수 전주시장 안전대책 주문… 시,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 점검

김승수 전주시장은 최근 연이은 대형 화재사고와 관련해 단 한 명의 시민도 재난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대책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는 지난달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와 경남 밀양의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인해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은데 따른 조치다.

김 시장은 2일 재난(화재)취약 다중이용시설 점검에 대한 긴급 간부회의에서 "안전 불감증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 지역사회 내에 안전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제천·밀양 화재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전주지역 목욕장 66곳과 대형병원 61곳, 대형마트 11곳, 영화관 6곳, 복지시설 87곳, 문화체육시설 41곳, 전통시장 5곳, 건축현장 33곳 등 재난사고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 540곳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했다.

점검대상은 △시설물 주요 구조부의 손상 및 결함 발생 유무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 점검 △가스설비 및 배관의 가스누출 여부 △소화설비의 여부 등으로 발견된 위험요소는 제거하도록 했다.

또 5일부터 오는 3월 30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는 특별 점검을 했던 540곳 외에 건축물 483곳과 산사태 위험지역·급경사지 190곳, 공공시설 190곳, 문화재시설 17곳, 학교주변 식품업체 등 기타 597곳을 포함한 총 1900여 곳으로 점검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진단과 선제적인 화재예방 대책의 경우 공무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김 시장은 "민간전문가와 함께하는 점검단을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 사전점검과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선제적으로 화재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 시장은 이날 국무총리 주재의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긴급대책 영상회의에 참여해 안전문제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도록 전문 직렬부서 신설 등을 건의했다. /채규남 기자

전주 결혼이주여성 검정고시·한국어능력시험대비반 개강

전주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학력취득 및 한국어 교육을 지원한다.

시와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일 고려검정고시학원에서 2018년도 검정고시반 및 한국어능력시험대비반 개강식을 가졌다.

먼저 올해 검정고시반에는 초졸반 20명과 중졸반 20명, 고졸반 15명 등 전주시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업이 진행된다. 수업은 초졸반 6과목, 중졸반 6과목, 고졸반 7과목이며 과정별 10개월 이상 1일 4시간씩 연간 800시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초급 1단계·2단계, 중급 3단계·4단계, 한국어능력시험대비반 등 한국어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개강한 2018년도 한국어능력시험 3·4급 대비반에는 결혼이주여성 25명이 참여하며 고급 한국어 과정을 습득한 후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결혼이주여성 최세영 씨(캄보디아)는 "선배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학에 진학하는 모습이 부러웠다"며 "열심히 노력해 올해는 대학에 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지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배움을 열망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학력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이주여성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와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일 고려검정고시학원에서 2018년도 검정고시반 및 한국어능력시험대비반 개강식을 가졌다.

전북지역 '연말연시 음주운전' 줄었다

적발 1077건으로 지난해 1233건 대비 156건 12.6% 줄어… 사망자 50% 감소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전북지역 음주운전이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1월20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73일 동안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였다.

이번 특별단속 전북지역 적발 건수는 1077건으로 지난해 1233건 대비 156건(12.6%) 줄었다.

특히 이 기간 음주교통사고 사망자는 4명으로 지난해(8명)보다 50% 감소했고, 음주교통사고는 135건으로 지난해(156건) 대비 13.5%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송년회와 신년회 등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를 감안해 특별단속 기간을 정하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시민에게 알렸다.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유흥가와 음식점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의지를 제압하는 위력단속을 시행했다.

특정 시간 없는 불시 단속으로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은 예고 없이 단속된다'는 인식 확산에 중점을 뒀다.

또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이동하는 '스팟이동식' 단속으로 음주운전 예방 효과를 높였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로 음주운전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신청 접수

전주시, 19일~28일까지

전주시는 경영난과 수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망 중소기업을 위한 융자 지원에 나선다.

전주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82억원(제조업 62억, 소상공인 10억, 청년기업 10억)을 활용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융자를 지원, 경영현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업장이 전주시내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융자한도액은 운전·창업자금으로 업체당 3억원, 소상공인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융자기간은 2년(1년 연장가능)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은 이자 중 일반기업은 3%, 여성·장애인기업과 벤처&바이전주 업체, 우수향토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각각 3.5%의 이자를 보전해줄 계획이다.

지원 신청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신청기간동안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 공고란의 공고문을 참고해 전주시 현장시청인 기업지원사무소(전북경제통상진흥원 3층)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청 업체는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융자평가표에 의거해 심사를 거쳐 융자금액이 결정된다. 또 융자지원이 결정된 업체는 소정의 서류를 갖춰 시중 8개 금융기관에서 2개월 이내 융자(대출)를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중소기업과(063-281-2945)로 문의하면 된다. 19일부터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 도로 '마을주민 보호구간' 도입

도로 개선 사업 추진으로 전주시 마을 주변 국도와 지방도에서는 차량이 천천히 달리게 된다.

시는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매암·원성덕·칠정 마을을 지나는 국도26호선(번영로)과 독배·화정·구덕·황소마을을 지나는 지방도712호선(우림로) 구간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마을주민 보호구간(Village zone)'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특히 국·지방도가 마을을 통과하는 일부구간(전·후방 약 100m)을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낮추고 교통안전시설을 보완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마을주민 보호구간 내에서는 현행 차량속도 보다 10~20km/h정도 낮추고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단속카메라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보호구간 진입 시 안내표지(표지판, 노면표시)와 제한속도 표시 등을 강화,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 뿐만 아니라 해당마을의 횡단보도를 과속방지턱 기능이 결합된 고원식으로 보강하고 조명 개선 및 시인성포장 등을 통해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무단횡단이 빈번한 곳에는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채규남 기자

서학동예술마을 도시재생 주민 공청회

전주시는 도시재생 전문가와 서학동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서학동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의 첫 발을 뗐다.

시는 지난 2일 국립무형유산원 어울마루 3층 국제회의장에서 도시재생 전문가와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대상은 전주시 미래유산 제1호 사업으로 미래유산 마을재생 계획을 수립하던 중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일반근린형) 공모 선정된 서학동예술마을을 일원이다.

공청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사전절차로 전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주요내용과 사업계획(안)에 대한 발표, 전문가 토론 및 질의응답, 시민 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예술의 힘으로, 주민의 참여로, 새 숨을 쉬는 서학동 예술마을'이라는 비전으로 한 서학동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올해부터 4년간 국비 100억원 등 총 169억원이 투입돼 △전주형 사회주택 주거재생 △기초생활인프라 구축 △근린생활 상가재생 △창업 지원기반 조성 △도시경쟁력 활성화 △사회적 통합 역량강화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채규남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